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조 선 로 동 당

제343호 【루계 제24756호】 주제103(2014) 년 12월 9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최후의 승리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제 2 차 군 인 가 족 열 성 자 참 가 자 들 과 함께 기념사진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황병서동지, 현영철동지, 서홍 찬동지, 박영식동지, 렴철성동지, 조경철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 성자대회를 직접 발기하시고 력 사적인 서한 《군인가족들은 총잡 은 남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 자》를 보내주시였으며 오늘은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 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 의 환호성이 러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강령적인 서한 에서 군인가족들이 지난 기간 최고사령관을 많이 도와주었다 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군인가족 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을 커 다란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자신 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총 쥔 군인들과 함께 우리 군인가족 들이 있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를 우러 러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적 으로 환영하였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 하시며 사회주의수호전에 한몸바칠 각오 를 안고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군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열 린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 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군인가족사업중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이속에 대회 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피

느리로, 군력강화의 일익을 담당한 녀성혁 명가들의 대부대로 억세게 자라났다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찬 력사에 는 가사보다 국사를 더 귀중히 여기며 청춘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의 대해같은 시절의 꿈파 리상, 가정의 행복도 군력강화 은덕에 기어이 보답할 불타는 맹세를 에 묵묵히 다 바쳐온 군인가족들의 숨은 굥 다짐하였다. 로가 뜨겁게 어려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이 당과 혁명, 조국 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것을 결심하고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선 총대혁명가들이고 최고사령관의 가장 가까운 전우 들인 남편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로 맞추어나가며 최고사령관 을 대신하여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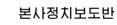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가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총잡은 남편들 이 집걱정을 하지 않고 혁명사업 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그들의 뒤바라지를 잘하며 언제나 화선 에 선 병사의 자세와 립장에서 살며 투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조국의 푸른 하늘가로 끝없이 메 아리쳐갔다.

경 애 하 는 최 고 사 령 관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 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군인가족들은 총잡은 남 편들의 믿음직한 부사수가 되 자!》라는 구호를 뼈속깊이 쪼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빛나는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 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 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기 제 5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 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 을 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인 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 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공연도 함께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 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손저어 주시였다.

황병서동지,서홍찬동 지, 렴철성동지가 공연을 보았다.

공연에는 조선인민군 제 564군부대, 제966군부대, 제 233군부대, 제 593군부 대. 제287군부대, 제630군 부대, 제380군부대, 제243 군부대, 제 468군부대, 제 600군부대의 군인가족 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 였다.

합창련곡 《영원한 미소》, 《사랑의 미소》,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 에는 시랑송이야기 《백두산일가분들과 사 회주의》, 실화극 《아버지》, 독창과 합창 《우리 원수님》, 막간극 《되돌아선 병사 의 어머니》, 기악과 노래 《웃음꽃이 만 발했네》,시이야기 《원한의 추천다리》 실화와 노래 《원수님의 축복》,독연 《중대군관의 안해》, 북파 기악 《우리 앞날 밝다》,실화 《우리 마음도 결사 옹위의 항로를 날은다》, 합창 《불타는 소원》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다함없 는 그리움과 열렬한 흠모심을 소중히 간직 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어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에 자기들의 마 음을 따라세우는 군인가족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우리 군인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하늘같은 은덕이 시 와 노래로 울려퍼지고 온 나라가 다 아 장재도의 정항명어린이가 무대에 나와 《아버지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자 판람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의 가 되여 헌신을 바쳐가는 군인가족들의

령도를 더욱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이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직 한마음 최고사령관동지만 믿고 따르며 신심과 락 넘쳐 전투적으로 생활하는 군인가족 관에 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힘있

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

게 과시하였다. 총잡은 남편들을 도와 병사들의 어머니

투쟁과 생활을 실감있게 보 여주었으며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출연 자들과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에 오르시 여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 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 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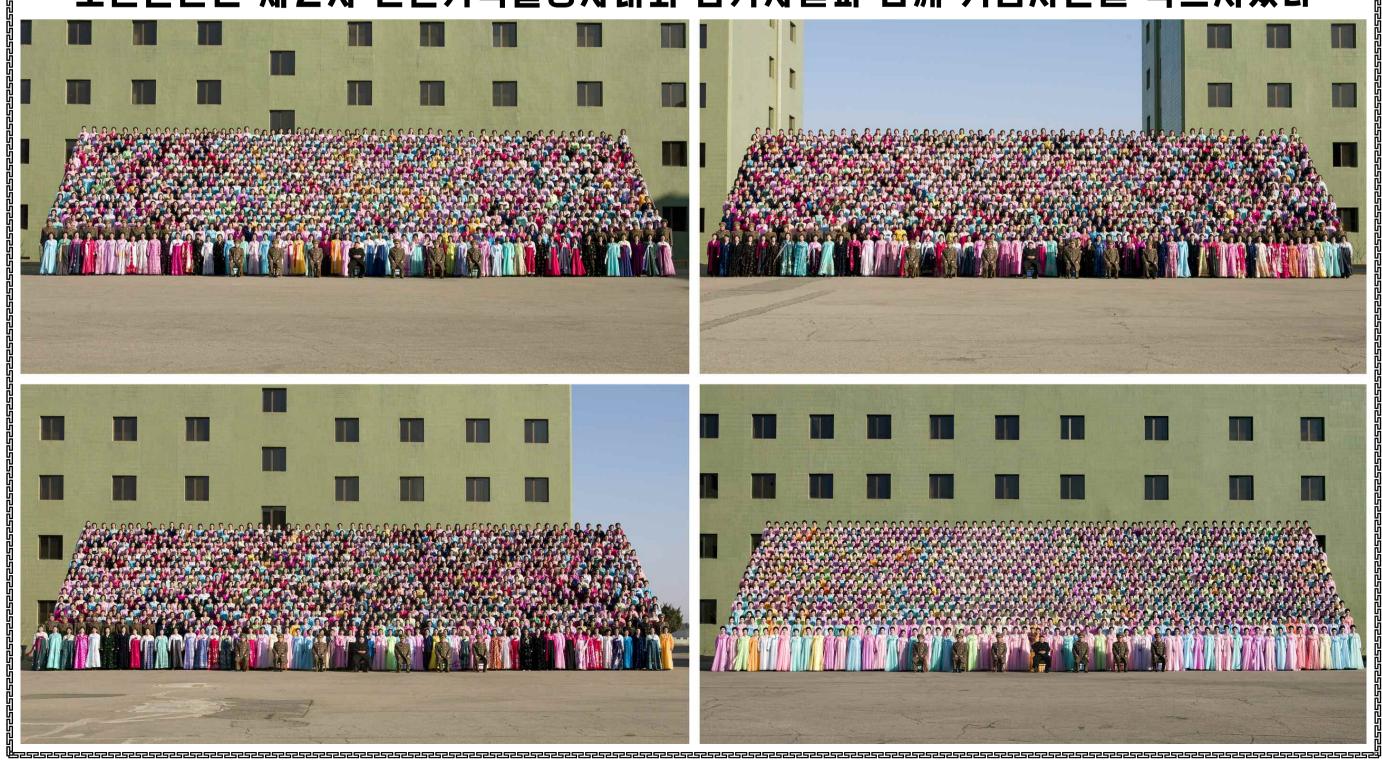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 해들이며 어머니들인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 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 열의, 혁명적락판주의를 보고 대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고 말씀 하시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저 렇듯 강의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더운 저 동지 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뗘메

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 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군혁명위업의 승리 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 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 면 으 로 계속

## 최 고 사 령 관 김 정 은 동 지 께 서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장력은 결코 강위력한 현대적인 타 격수단들을 갖추고있어 강대한것이 아니 라 이처럼 부사수들이 남편사수들결에서 뒤바라지를 하고있기에 인민군대가 그 어 떤 동란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당과 혁명 을 억척같이 보위해가는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 가고있다는것을 새삼 새겨안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들의 눈빛에서 말없는 기대의 목소리를 들으며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동지들의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틀어잡고있는 총대인우리의 혁명무장력을 최고사령관으로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더 잘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들 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녀성혁명대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누가 보건말건 말없이 남편들의 뒤바라지를 하 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동지들이 흘 리고있는 순결한 량심의 땀방울들은 혁명 의 피방울인양 우리 혁명의 맥동을 더해주

며 더 윤택한 앞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게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지해주는 동지들에 게 다시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 들과 같은 사랑하는 안해들, 다심한 어머니들의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적에 대한 증오를 키우며 사는 동지들의 남편들, 동지들의 자식들은 소중한그 눈빛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더 용감하게 싸울것이며 영원히 혁명의붉은기를 더 높이 날려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께서는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혁명에 더없이 충실하고 조국번영을 위한 생눈길을 맨앞장에서 더 용감히 헤쳐나갈수 있도록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군인가족들이우리 혁명의 작식대원으로서의 본분을 더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지들이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우리 당의 사상을 깊이 새겨안고 내려가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군인가 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리라 는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판동지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전우들이자 동지들의 남편들, 자식들인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머느리들인 동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 식들에게 힘이 되여주기를 바란다고 하 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 자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군인가족 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솟구치 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폭풍같은 《만세!》를 터쳐올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 시며 군인가족들의 천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려려 목메여 부르는 열광의 환호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 번지였다.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공연을 함 께 보아주시고 전체 군인가족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 리면서 총잡은 남편들의 부사수라는 값높 은 영예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조국보위와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 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자

#### 현실은 어떤 인간을 요구하는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 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 LICH. »

날로 악랄해지는 날강도 미제 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내달리고있 는 오늘 당조직들이 보다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당원들과 근 로자들속에서 신념교양을 강화 하는것이다.

혁명적신념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령도자를 굳게 믿고 따르는 마음이다.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만년 재보로 삼고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충직 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것은 지난 3년간 의 력사가 확증해준 진리이다.

현실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 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 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 내여나가는 투철한 신념의 소유 자. 고결한 도덕의리의 체현자 가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함경북도당위원회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자면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도

혁명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이것을 깊이 자각한 도당위원 회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대중속 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상

교양작전을 잘 짜고들었다.

이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 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단위, 자기 군, 자기 도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내용 을 환히 꿰들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 것이다.

선전선동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도에 새기신 령도사적자료들을 보충하여 위대성교양자료를 보 다 풍부히 하는 한편 《북변땅 에 새겨진 선군령장의 위인적 풍모》를 비롯한 수많은 위대성 교양자료들을 마련하여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 배포하였다.

자기 단위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사적을 잘 알게 하는데서 연혁소개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올해 봄 도미술창작사에 새로 조직된 학 술실을 중시하였다.학술실의 력량을 품들여 꾸려주고 도당일 군들이 학술실성원들과 함께 아 래단위들에 내려가 자료확보도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는 하면서 연혁소개판의 도안을 잘 만들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데 필요한 현대적인 인쇄설비들 도 갖추어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위대성교양사

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 은 또한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한 일군들만이 아니라 모든 일군들 이 떨쳐나서는 위원회적인 사업 으로 전환시키고 일판성있게 밀 고나간것이다.

도적인 강연강사들의 경연이 자주 조직되고 렁도업적단위들 을 선동사업의 본보기단위로 꾸 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전개 되였다. 출판물보급원들을 도안 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여 도서 《위대한 생애의 2011년》을 비롯한 16건의 위대성교양도서들에 대한 선전 사업을 벌리도록 하였다. 도당위 원회의 작전과 지도에 따라 의의 있게 조직된 회고모임 《장군님 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은 당원 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도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적 과 인민사랑의 전설을 더 잘 알

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한두번의 작전으로 그친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끊임없이 심화된 도당위원회의 진공적인 사상공세는 은을 냈 다. 어버이장군님의 위대성과 과정에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

한평생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 히 높이 받들어모실 충정의 마 음을 더 깊이 간직하였다. 그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령도업적을 가슴에 새기며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길에 강성국가건 설의 최후승리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게 된것은 도당위원 회의 참신한 사상교양사업의

결실이다.

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신념은 실천투쟁을 통해 발현 되며 그 과정에 더욱 굳건해진다. 도당일군들은 언제나 도당위 원회구내에 모셔진 친필비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일하고있다. 힘을 내여 선군시대 대렬에 보 폭을 맞추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새기며 도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 철저히 관철되는 도, 경애하는 원수님께 가장 큰 기쁨 을 드리는 도로 되게 하려는 충정 의 맹세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청진시의 면 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밀고나가고있다. 특히 포항 중심부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건 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여 청진 시가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령도업적 단위들을 본보기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도당 위원회 집행위원들은 물론 모든 부서들이 령도업적단위들을 맡 아 힘있게 밀어준 결과 무산광 산련합기업소, 청진토끼종축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 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 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 서 장군님께서 교시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되며 강성국 가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오 게 된다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으로 가슴 불태우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 로 벌려 그들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선군혁명투사들로, 혁명적신념 의 강자들로 더욱 억세게 키우

모든 당조직들이 함경북도닷 위원회처럼 격동적인 현실의 요 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열렬한 충신,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갈 때 최후승리의 날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순 영

◇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1 2월이다.

금수산태양궁전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며 누구나 조용히 뇌여본다.

《나는 과연 우리 장군님처럼 살아왔는가.》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도, 탄부들과 전력생산자들도, 농업근로자들과 어로공들도, 과학자들과 교육자들도, 청천강전 역의 용사들과 세포지구의 개척자들도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음앞에 선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헌신의 한평생을 다시금 되새기며 지나온 3년세월을 돌이켜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은 용암마냥 끓어번진다.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장군님처럼 조국을 위해 헌신하자!

이것이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이 12월에 다지는 신념의 맹세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은 우리 인민모두의 삶과 투쟁의 거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반들어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습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167만 4 610여리 현지지도의 길, 찾으신

단위는 무려 1만 4 290여개.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 시며 우리 장군님 한평생 헤치신 영웅서사시적 인 행로이다.

하기에 이 나라의 한 시인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을 그대로 이어놓으면 선군조선

신 의 **잘** 

量 L L L L L

신

의 지도가 된다고 격정을 터친것이 아닌가. 언제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 누구나 장군님의 인생관을 닮아야 한 다고 말하고싶습니다. 장군님의 인생을 한마디 로 표현한다면 불같은 인생이였다고 할수 있습 니다. 장군님의 한생은 말그대로 타오르는 불길 이였습니다. …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는 없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삶과 투쟁의 가장 숭고한 거 울로 소중히 간직되여 영원히 빛나고있는것이다. ♦ 우리 장군님처럼 살자!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인생판으로 되여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 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천과 결부하여 참신하게 진행함으로써 온 나라에 애국의 열풍 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일군들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사랑의 한평생을 빛내이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따라배워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하루를 살아도, 한생을 바쳐도 어버이장군님을 닮고 장군님처럼 살며 투쟁해나가는것을 량심과 도덕으로 간직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사랑하고 심혈을 기울여오신 우리 조국땅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 숭고한 도덕의리심, 불같은 실천

###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말 이나 글이 아니라 불같은 실천 이여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구성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을 통해서 도 다시금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 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 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올해 3월 공장초급당집행위 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답게 공장 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목표가 명백히 세워진데 맞게 일군들에게 분공이 조직되 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공장의 면모 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의 중심 을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이 어려있는 사적건물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두면서 문화후생시설들과 자재과, 공무 동력과의 자재분창고들을 새 세 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데 힘을 넣었다.

초급당위원회는 이 사업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휘되는 과 정으로 되도록 정치사업을 힘있 게 벌렸다.

연혁소개실참판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실천 에서 높이 발휘한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우도록 하

힘있는 정치사업은 전례없던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공무직장을 본보기로 내세워

온 공장에 자력갱생의 불길, \_\_\_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당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로 조직된 판정성원들은 공장의 꾸리기정형을 수시로 료해하고 총화하였으며 긍정적모범을 널 리 일반화하는 사업도 잘 따라 세웠다.

그 과정에 공장의 면모를 짧 은 기간에 일신시키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공장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 의 유훈관철에서 선군시대 공로 자들과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당원들과 종업원들 이 앞장서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일군들은 이들의 사업정형을 알아보면서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

은 곧 실천으로 빛나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오의 기수가 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 록 이끌어주었다.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총폭발 되는 나날에 지난 7월 정방 1 직장 정방공 원은정동무가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제일먼 저 넘쳐 수행한데 이어 직포2 직장 직포공 주명희,준비 1 직장 권사공 로은희, 직포 1 직장 직포공 백현옥, 준비 2직장 권사공 리송임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 고 련조직장에서는 허영춘동무 를 비롯한 7명의 동무들이 2년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대 렬에 들어서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으며 10월말까지 6 0 여명의 종업원들이 올해

되였다. 당조직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실천 으로 발휘해가는 이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여 온 공장에 생산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불같은 실천으로 발휘해나가도록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 는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얼마나 좋은가. 본사기자 리종석

석지건설장에서-조직정치사업을

황해북도에도 뜨겁게 아로새겨 져있다.

황주군에서는 군과 도에 깃 든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사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잘해나가 고있다.

최인철, 한영숙동무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은 백두산3대장군 의 위대성자료를 잘 만들어 공 장, 기업소는 물론 협동농장의 작업반들에까지 내려보내여 그 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게 하고있다.

특히 선동원들이 당초급선전

깊이 새겨주도록 하고있다. 통한 교양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자기 단위에 깃든 사적내용을 잘 해설해주면서 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을 실효성있게 벌려

들어가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

여 그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는 군당일군들은 혁명적인 도서를 교양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는데 군안의 당초급일

> 기본으로 하여 진행하는 이런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참으로 크다.

본사기자

1 2월, 조용히 불러만 보아 도 이 가슴을 두드리며 울려오 는 렬차에 오르면 집에 온것만 는 메아리가 있다.

기적소리이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이 더욱더 사무쳐지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 하여 순간의 휴식도 없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끌없 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라오르게

하시였다.》 찌 기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지론이였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군대 이민들속에 들어가는것 을 어길수 없는 혁명일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울려오신 기적소리 에는 얼마나 뜨거운 사연이

실려있는것인가.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뜨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고,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행렬차를 더욱 힘차 게 몰아가신 어버이장군님.

어찌 잊을수 있으랴. 강행군의 나날에 습관된 렬차 생활에 대해 추억하시면서 이제 같고 반대로 집에 들어서면 려

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어쩌다 푹신한 침대에 들면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신 리, 1 2월의 기적소리여서 다 상 우리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교시를. 참으로 력사의 갈피를 번 져보아도, 세계를 둘러보아 도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인간

은 없었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 한평생 울려오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버이를 령도자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끝없

이 새겨주고있는것이다. 바로 그 애국헌신의 기적 소리에서 조국의 존엄이 빛났고 인민의 행복이 꽃펴

그날의 기적소리는 오늘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 움을 더해주며, 불같은 맹세

있다.

그렇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몬떼비데오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대통령당선자

## 따바레 라몬 바스께스각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신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 또다시 우루과이동방공 화국 대통령의 중책을 지니게 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념원에 부합되게 가까운

앞날에 조선파 우루과이사이에 친선의 뉴대가 맺어지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신이 건강할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체103(2014)년 12월 1일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러나가고있다. -선교구역원림사업소에서-본사기자 찍음



#### 고장의 사적내용을 어버이장군님의 령도업적은 일군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위대성교양자료를 통한 교양사 업을 잘하여 군과 도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당 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나가고있다.

군당일군들은 농장원들속에 도서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한편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하

당세포비서들의 좋은 경험도 적극 일반화해나가고있다. 얼마 전에도 교양거점들에서 위대성 군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자기 단위에 깃든 사적내용을

났다.

도 변함없이 울리고있다. 의 박동을 더해주며 천만의 심장속에서 끝없이 울리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의 불같은 헌신을 전하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선 률로 엮어진 절절한 그리움의 노래로, 최후승리에로 힘차게 떠밀어주는 진격의 나팔소리로

영원히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장철 범

## 김 일 성 동 지 께 서

##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만들자》를 발표하신 50돐 기념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 교양,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만들 자》를 발표하신 50돐 기념 보고회가 8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들, 교육기관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량홍주 문화성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

김기남동지와 관계부문, 영화예

술부문 일군들, 창작가, 예술인

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 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 에서 새로운 조선속도를 창조하 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교양, 계급 교양에 이바지할 혁명적영화 를 더 많이 만들자》를 발표 하신 5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53(1964)년 12월 8일 조선 예술영화촬영소에 나오시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 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주체영화예술발전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 을 밝혀주신데 대하여 언급하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양하는데서 혁명적분학예 술이 노는 역할이 매우 큽니 다. 특히 혁명적영화가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예술영화촬영소가

이룩한 성과와 근로자들을 혁명 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 영화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로작에는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을 주제로 한 영화와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대고조 에로 불러일으킬수 있는 영화

하나하나 밝혀져있다고 말하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을 옳게 결합시키고 영화에 음악과 노래를 많이 넣는 문제, 영화예 술인들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단련하며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 혁명적 영화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그 성과적보장을 위한 방도들이 명시되여있다고 말하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밝혀주신 혁명적인 영화창작에 관한 사상리론은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 시여 문학예술혁명방침을 제시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하시고 그 돌파구를 영화예술에 지난 기간 영화창작사업에서 서부터 열어나가실 원대한 구상 을 안으시고 영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계 지퍼올리시였다.

그 직접적담당자인 영화예술 인대오를 충정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을 영화로 옮기는 숭고한 위업 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혁명적 영화예술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 를 많이 만드는것을 비롯하여 해주시였다. 혁명적영화창작의 주제방향이

영화예술부문 사업을 지도하 시면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자주시대 영화예술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며 주체의 문학리 론총서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간학 으로서의 문학예술의 본성과 사명, 독창적인 종자론을 천명 하시고 창작원리와 원칙들을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별》, 《만병 초》,《초행길》,《월미도》를 비 롯한 많은 예술영화들이 창작되 여 수령형상창조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혁명교양,계급교양에 크게 이

바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이 발표된 때로부터 우리의 영화예술이 걸어온 지난 50년 은 절세위인들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 이 뚜렷이 과시된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보고자는 영화예술부문의 모 든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높이 선군조선의 새 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총진군을 힘있게 고무추 동하는 명작영화들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1970년대 영화예술인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충직하 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 들처럼 부단히 새것을 창조해나 가는 진취적인 사업태도, 높은 창작적야심과 완강한 실천력을 총궐기해나서야 할것이다.

영화문학이 쏟아져나와야

영화의 대풍을 마련할수 있다는것 을 명심하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업적,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 문학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우리 어린이들의 특성과 인민 의 사상과 감정정서에 맞고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전통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주제와 형식의 만화영 화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 여야 한다.

한다.

기록영화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과학상식주제의 과학 영화들을 더 많이 만들어 우리 인민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습득 해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여야

한다. 실력을 높여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명작폭포를 안아오 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하며 새 세대 영화예술인들은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세계적 인 영화발전추세 등을 꾸준히 체득하여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두다 주체의 영화예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 을 옹호교수하고 더욱 빛내이는 지니고 명작영화창작전투에 선구자, 기수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사상과 신념을 추호도 흔들수 없다

《인권》소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치 솟는 분노와 멸적의 보복의지로 끓어 번지게 하고있다.

더우기 격분을 금할수 없는것은 남 조선괴뢰들이 유엔에서의 반공화국《인 권결의》조작과 때를 같이하여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모략책동의 도수를 갈 수록 높이고있는것이다.

괴뢰패당은 도발적인 《북인권법》을 올해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발 팡하는 한편 극우보수단체들을 부추겨 우리를 대상으로 한 그 무슨 《국민통 일방송》이라는것을 새로 내오려고 하 면서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것과도 같은 피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인권》, 심리모략책 동은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고있다.

그 주되는 목적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간 직된 신념을 허물어보려는데 있다는것 은 두말할것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간직된 사상과 신념은 원쑤들의 그 어떤 모략 과 유혹, 훼방으로써도 흔들수 없는 가 장 억세고 변함이 없는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사상과 신념은 민 족의 최고존엄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 의 품속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성 장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품속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 칠 각오를 천백배로 굳힌 군대와 인민 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절세위인들

을 높이 모시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계에 떨치며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떠나 우리 민족의 긍지높고 영광넘친 오늘과 무궁번영할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의 최고존엄 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것이다.

남조선괴뢰패당의 반공화국《인권》모 략소동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의 사상 과 신념의 근본바탕인 최고존엄에 대 한 무엄하기 그지없는 도전행위이다.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덤벼드는자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절대로 용서할수 없으며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를 내려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천만군민의 분 노와 보복열기는 하늘끝에 닿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따르는 우리 천 만군민의 사상과 신념은 그 어떤 광풍 이 불어와도 끄떡없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 주의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강국이다.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우리 의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렸으 며 그것은 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속 에서 더욱 억세여졌다.

지난 세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 회주의가 좌절되자 미제와 남조선괴뢰 들은 그 무슨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 하여 요란스럽게 뗘들어댔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원쑤들의 온갖 비난과 훼방에도 끄떡없이 선군의 기치밑에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자기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였 으며 오늘은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

을 따라 자주와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 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 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조 선속도를 창조하며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 의 눈부신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서 무한대의 위력으로 폭발하 는 사상의 힘, 신념의 힘이 펼친 력사 의 기적이다.

우리에게는 미국과 괴뢰들이 떠들어 대는 가소로운 《인권》나발이 날로 승 승장구하고있는 공화국의 위력에 질겁 한자들의 한갖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작당하여 조 작한 그 무슨 《인권결의》라는것은 조 국과 인민앞에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제 고향, 제 부모처자마저 버 린채 도망간 인간추물들이 돈에 환장 하여 제멋대로 꾸며낸 거짓자료에 기 초하여 고안해낸 날조품이다. 괴뢰패 당의 《북인권법》, 《국민통일방송》조작 놀음도 거기에 기대를 건 반공화국도 발광대극이다. 그따위 서푼짜리 모략 으로 선군으로 존엄높고 일심단결로 위력한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려드니 이 얼마나 가련한자들인가. 핵무기로 도 깨뜨릴수 없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역겹기 그지없는 《인권》모략으로 허물 어보려는것은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는

격의 미욱한짓이 아닐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집요하게 추구해 온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구상》 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것들은 이 미 총파산의 운명에 처하였다. 괴뢰들 이 미국과 야합하여 악랄하게 감행해

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괴뢰들은 물 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있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요란히 떠들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더욱 기승 을 부리고있다.

그야말로 멸망에 직면한자들의 최후 발악이 아닐수 없다.

거짓말은 아무리 달려도 진리를 따 라잡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괴뢰패당 이 제아무리 거짓과 모략을 일삼으며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매여달려도 진 리로 뭉쳐진 우리 천만군민을 절대로 당해내지 못한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괴 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인권》소동 에서 자멸을 재촉하고있는 역적패당의 가련한 몰골을 보고있다.

암흑은 광명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법이다. 괴뢰들이 세계최악의 인권불 모지에서 제아무리 《인권》을 떠들어대 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은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 것은 온갖 사회악이 만연되고 근로인 민의 존엄과 권리가 깡그리 짓밟히고 있는 인간생지옥, 민주의 페허지대에 서 달리는 될수 없는 필연이다. 파쑈독 재와 반인민적악정에 결연히 항거해나 서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 은 괴뢰보수패당의 명줄을 조이고있 다. 그 거세찬 항거의 불길에 휘말려 종말을 고할것은 인민을 등진 괴뢰반 역패당이다.

원쑤들의 그 어떤 모략소동도 자주 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변함없 이 걸어갈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 념과 의지를 절대로 꺾을수 없다. 최 철 순

#### 로 동 堊

##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에

로씨야고려인통일런합회 고 하면서 미국이 무슨 명분 위원장과 로씨야-조선반도 종단자동차행진단 성원이 11월 27일 미제와 추종세력 의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 ░을 규탄하는 항의성명을 발 표하였다.

0

권

워

타

回

성명은 이번에 날조된 반 공화국《인권결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이중기준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에서는 주민의 절반이 상이 인종차별에 시달리고 백주에 백인경찰이 무고한 흑인을 총으로 쏴죽이고있다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하

으로 《인권》에 대해 감히 말 할수 있는가고 단죄하였다. 로씨야-조선반도종단자동

차행진단 성원들은 공화국 의 전령토를 답사하는 과정 에 잘 정리된 농장포전들과 아담한 농촌마을,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새 생활을 창조하며 마음놓 고 일하는 모습들과 어린이 들의 밝은 웃음을 직접 목격 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 운 도시의 하나인 평양에서

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조 국이라고 격찬하였다.

유엔에서의 반공화국《인권 결의》조작에 대해 절대로 가 만히 있을수 없다고 언명하 였다. 국제사회가 실제적사 실과 공정성에 기초한 자기 의 독자적인 견해를 가져야 하며 미국이 지시하는대로 이중기준에 따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재판정에 세워야 할 나라는 다름아닌 이 지구상 의 모든 악의 근원이며 악을 체현한 미국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가 글 발표

가 11월 24일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을 규탄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미국이 공화국의 《인 권문제》에 대하여 요란스럽 게 뗘들어대는것은 본질적 으로 체제전복, 국가전복을 노린 엄중한 침략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오늘 미국과 서 방나라들은 자기 나라 국민 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 등 ┗━ ◎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인권 탄압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고 폭로하였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국가 의 묵인조장하에 저질러지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백인경 찰들이 무고한 흑인들을 사 살하는 사건들이 련이어 일 어나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

고 비난하였다. 국민들에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로동의 권리, 먹고 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수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 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

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침략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 히 간섭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을 유린말살하고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전화도 청 및 전자우편절취로 불법무 도한 정탐행위를 하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인

권》을 구실로 자주적인 길로 나아가는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여 그 나라들에서 국 가정권을 뒤집어엎고 인권 탄압을 부추기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인 권》소동으로 하여 가뜩이나 첨

예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 가 날로 더욱 악화되고있다.

《인권문제》는 미국의 강권 과 독단, 이중기준으로 하여 날로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 지고있다.해마다 그 무슨 《이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 하고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법까지 채택하는 놀음을 벌 려놓고있는 사실을 통해서 도 잘 알수 있다.

올해에도 미국은 《2013 년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며 《현재 미국만 큼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하 는 나라는 없다. 》는 뻔뻔스 러운 주장을 늘어놓았다.

글은 국제사회는 인권유 린의 왕초가 《인권재판관》행 세를 하는데 대해 준렬히 규 탄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지울수 절대로

도하였다.

미국은 해방후 남조선을 강 히 학살하였다. 대전감옥에서 하였다. 점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대 상으로 온갖 치떨리는 범죄행 위를 저질렀다. 특히 미제침략 군이 지난 전쟁시기 남조선에 서 감행한 민간인대학살만행은 잔인성과 야만성에 있어서 력 사상 그 류레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반인륜적범죄였다.

이미 미제는 전쟁전부터 남 조선을 인민들의 민주주의적권 리와 자유가 짓밟히고 대중적 학살이 무수히 벌어지는 몸서 리치는 인간생지옥으로 만들었 다. 남조선인민들의 총의에 의 해 수립된 인민위원회들을 총 칼로 강제해산하고 애국적인 정당, 단체들과 인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테로와 학살만행을 감행하여 온 남조선땅을 시체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피 에 주린 살인마로서의 미제침 략자들의 잔인성과 야수성은 지난 전쟁시기에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미제침략군은 인민군대의 드 세찬 공격에 밀려 패주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이르 는 곳마다에서 죄없는 인민들 을 가차없이 학살하였다. 19 50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남조선 전지역에서 수 천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무참

1 800여명에 달하는 인민 들을 학살한 사건과 경상북도 포항앞바다, 충청남도 조치원, 전라북도 리리역, 충청북도 영 돗에서의 대학살만행은 폭로된 몇가지 사실에 불과하다. 이로 하여 남조선의 이르는 곳마다 에서 인민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세상에 널리 폭로된 충청북 도 영동군 로근리에서의 민간 인대학살만행도 바로 이 시기 에 감행되였다.

1950년 7월 25일 충 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일대에 몰려든 미제침략군은 대전에서 인민군대에게 참패를 당한 분 풀이로 이 일대에서 주민들을 부근의 집들을 발칵 뒤져 마을 고는 맹사격을 퍼부어 모조리 학살하였다.

다음날인 7월 26일에는 사람들을 도로와 철길우에 집 결시켜놓고 비행기를 호출하여 무차별폭격을 가하였다. 여기 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 이 폭격을 피해 철길밑에 있는 굴다리에 모여들자 야만들은 야산에 기관총을 설치하고 3 일동안이나 총탄을 퍼부어 무 려 수백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죽이는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

로근리학살사건과 관련한 미 륙군 제25사단 사령부의 명 령서를 입수하여 공개한 한 외 신은 당시 만행현장에 있었던 이전 미군병사들의 증언을 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미군

병사는 《현락병이 달려와 〈몽 땅 쏴죽이라. 한사람도 남겨두 지 말라. 〉는 명령을 전달하였 다. 》고 말하였으며 다른 한 병 사는 《나는 총을 갈겨댔다. 상 관에게 더는 물어보지 않고 단 지 사격만 하였다. 그야말로 대 학살이였다.》고 고백하였다. 또 다른 미군병사는 《사령관의 명령은 움직이는것은 모조리 쏴죽이라는것이였다. 피난민도 피난시켜준다는 구실밑에 그 거기에 포함되는가고 묻자 그 는 〈그렇다. 움직이는 모든것이 다. >라고 대답하였다. »고 실

> 토하였다.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난 피난민들을 비롯한 목격자 들과 체험자들은 《미국놈들은 곤충을 가지고 장난하는 총각 애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가지 고 장난하였다.》고 하면서 치

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로근리에서 적수공권의 무고 한 인민들을 상대로 하여 비행 기들을 띄우고 중무기들을 동 원하여 며칠동안이나 사람잡이 에 미쳐날뛴 천인공노할 민간

인대학살만행은 양키들이야말 로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 극 악한 살인악마들이며 우리 민 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라는것 을 톡톡히 보여주고있다.

지금도 남조선에서는 지난 전쟁시기 미제침략군에게 무참 히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유해 가 계속 발굴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저들이 저지 른 용납 못할 반인륜적죄악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있는가 하 면 그 무슨 《유감》이니, 《동정》 이니 하는 허튼소리로 자기들 의 범죄행위를 축소, 은페하려 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선전 쟁시기 수많은 민간인들을 야 수적으로 학살한 그 피비린 죄 악의 력사는 절대로 지울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미제침략군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령혼들은 오늘도 잠 못 들고 살 인마들을 천백배로 복수해줄것 을 애타게 호소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백년숙적인 미 제가 이 땅에서 감행한 민간인 대학살만행을 절대로 잊지 않 을것이며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하여 미 제에 의해 세기를 두고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한 민 족의 한을 기어이 풀고야말것 이다.

### 국제회의장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민족교육사업과 동 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대 중적애국운동을 활발히 벌려 새 세대를 비롯한 총련의 군중

적지반을 보다 확대강화하며 광범한 동포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재일조선인운동 의 새로운 전성기를 성과적으 로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동포사 회의 존망과 관련되는 민족교육 문제에서는 그 어떤 양보나 타 협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동포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민족교육권리옹호기운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얼마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인종차별철 페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는 청

총련 고베조선고급학교의 량 성수학생이 지난 8월에 진행 된 일본 전국고등학교종합체육 대회 권투경기에서 우수한 성 적을 거두어 강자들의 대령에 당당히 들어섰다.

일본사람들을 놀라게 한것 은 그가 권투를 시작한지 1년 도 안되는 신진선수라는 사실 이였다.

량성수는 본래 학교축구소조 시게 활약하는 선배들의 모습

상회와 류학동, 재일본조선인인 였고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 권협회 대표들의 적극적인 활동 이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대표 들은 회의에 두가지 문제를 정 식으로 제기하였다. 즉 고등학교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

나타난

의 보조금지불중지문제였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재일 동포대표들은 국제기구성원들 과 비정부기구대표들을 대상으 로 일본당국의 우심한 민족교육 차별행위와 그 목적에 대한 해 설선전을 진행하였다. 류학동 성원들의 의지가 담겨진 횡단막 을 펼쳐들고 회의에 참가한 류

학동 도꾜지부의 박광령학생은

동포학생들이 제작한 민족교육

을 소개하는 인쇄물들을 배포하

있는 상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직판물을 통한 선전활동을 벌리 였다. 대표들은 일본당국의 민족 시킨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와 그 여파로 산생된 지방자치체들 차별적인 정책으로 총련의 민족 교육이 직면한 문제 등 여러가 지 첨예한 정치적문제들에 대한 여론을 적극 환기시키였다. 그들 의 활동에 의해 회의장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리 를 지지하고 련대성을 강화하려 는 의지의 목소리들이 높이 울 려나왔다. 국제기구대표들은 부

동포대표들

무국 부장 신창수동포는 일본

각 지역에서 우리 학교들에 대 한 보조금지불이 중지, 거부되고 당한 리유로 조선학교들을 차별 대상으로 하고있는 일본당국의

이 《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느니, 《일조관계가 정 상화되면 해결될수 있다. 》느니 하는 외마디소리로 얼버무리면 서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다 가 추궁을 받았다. 이밖에도 재 일조선인들에 대한 증오를 고취 하는 폭력행위들과 일본군성노 예문제, 재일조선인고령자들과 장애자들에 대한 지원거부문제 등도 론의의 초점으로 되였다.

회의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속 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꿋꿋 이 민족교육을 계승발전시켜가 고있는 재일조선인들의 기개에 대한 감탄의 목소리도 높아졌 다. 민족교육사수투쟁의 무대 를 국제기구에로 확대하여 큰 성과를 거둔 이 소식은 총련일 군들과 동포들을 크게 고무하 고 애국위업의 한길로 적극 뗘 밀어주었다.

속통좁은 처사를 비난하였다. 바

빠맞은 일본대표는 조선학교들

을 보면서 그는 권투로 민족의 기개를 떨치겠다는 결심을 다 지게 되였다. 부모는 그의 결심 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량성수 에게 있어서 권투는 체력단련 만이 아니라 민족의 강의한 정 신력을 키우고 억센 기개를 떨

치기 위한 수단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적극 도 원이였다. 권투무대에서 눈부 와주었다. 뜻하지 않은 병으로 권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였

지만 스스로 상대선수가 되여 기술련마를 적극 도와준 오경 희학생을 비롯한 동무들과 동 포들의 진정은 량성수의 심금 을 울리였다. 하기에 경기대회 장에서 그는 동포들의 뜨거운 성원에 온몸으로 화답하며 만 만한 배심과 투지를 안고 자기 의 특기로 드센 공격전을 들이

대여 주도권을 확고히 쥐군 하

였다.

장내를 꽉 메운 동포들의 열 렬한 응원소리는 힘과 의지를 백배로 해주군 하였다.

지금 그는 언제나 조선사람 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살수 있도록 따뜻이 이끌어주고 보 살펴준 총련조직의 품과 민족 교육의 화원이 있어 자기의 오 늘이 있다고 하면서 필승의 의 지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 권력의 시녀 괴뢰검찰을 규탄

최근 남조선에서 괴뢰검찰이 의 글들을 올렸다고 한다. 그런 한 주민을 명예훼손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주민은 지난 8월 부터 1 1 월까지 인터네트에 《〈세월〉호참사는 현 〈정부〉가 계획한 대학살이고 해군잠수함 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대학 살을 지휘하고 집권자에게 보고 했다.》,《〈세월〉호 1등항해사 는 정보원 요원이였다. 》는 내용

남조선의 《보안법》폐지국민 련대를 비롯한 각계 성원들이 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 에서 악법을 앞세운 인권유린 행위가 심화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남조선공안당국이 《보안법》 을 휘두르며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마구 구속하고있다.

경찰은 각계 단체들과 개인 들이 인터네트에 게시한 북과 관련된 글들이 《보안법》에 저 촉된다고 하면서 삭제할것을 강요하고있다.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

찰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뗘 들며 그를 구속기소하였다. 이 것이 지금 남조선 각계의 반발 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검찰당국

데 괴뢰검찰은 그가 허위사실을

싸이버공간에 류포하여 해양경

이 지난 9월 《싸이버상에서 〈국론〉을 분렬》시키는 행위를 막으라는 집권자의 말이 있은지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자갈을 물리고있다고 규 탄하였다. 한 변호사도 기자회견에서 검

이틀만에 전담수사조를 구성하 였다고 폭로하면서 검찰이 현

찰이 주민을 구속기소한것은 《검찰권을 람용한것》이라고 비 난했다. 그는 검찰의 처사는 《세 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현《정권》 에 비판적인 모든 세력들에 대 한 보복적조치라고 폭로하였다. 본사기자

### 《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실래를 폭로

라도 2009년부터 2014년 8 월까지 인터네트에서 삭제된 게 시물들은 20만 6 400여건에 이른다.문제의 글들은 항일무 장투쟁사와 공화국의 정치,경 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소식들과 언론에 보도된 공화국의 립장을

담은 내용들이라고 한다.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는 단체 나 개인들에 대해서는 징역에 이 르기까지 실형이 가해지고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하에서 《보안법》사건이

량적으로 매우 증가하였다고 까밝혔다.

《보안법》의 7조 《찬양. 고무 죄》가 공안당국에 의해 마구 람용되고있고 인터네트에 오 른 게시물들이 단지 북과 관련 된 정보라는 리유 하나만으로 삭제령이 내려지고있다고 단 죄하였다.

게시물삭제령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 고 그들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 락 꼬리 잡혔나》등의 각종 폭 조선정치를 잘 알수 있다. 언론 《사실무근》이니, 《풍설수준》이

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정윤회국 정개입의혹사건》이라는 요란한 정치추문사건이 터졌다.

아무런 공직도 없는 정윤회 가 현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배후에서 청와대의 인사문제를 좌우지하고 정치에 제멋대로 개입하며 그야말로 남의 잔치상에 감놓아라 배놓 아라 하는 격으로 놀아댄 사건 이다. 《세계일보》가 그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하였다.

1 1월 2 8일 이 신문은 정 윤회라는자가 청와대의 《권력 3인방》으로 알려진 3명의 비 서관 등 10명과 매달 몇차례 씩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의 내부동향과 통치방향을 비롯한 중요자료들을 료해하고 지시를 내리였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 대 공직기강비서판실의 감찰보 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윤회는 현 집권자를 뒤받침하고있는 《7인회》성원들사이의 알륵판 계를 리용하여 청와대 비서실 장 김기춘까지 제거하려 했다. 이 보도는 온 남조선사회를 들끓게 했다. 남조선 각계에서 는 《풍문으로 나돌던 〈십상시 (고대력사에서 황제우에 군림하 여 권력을 휘둘러 악명을 펼친 환관 10여명을 이르는 말))의 꼬리가 잡혔다. 》, 《정씨를 중심 으로 〈대통령〉최측근비서판들 환관들처럼 국정을 롱락했 다. 》, 《청와대에서 악취가 풍긴 다. 》라는 경악과 비난의 목소 리가 련일 터져나왔다. 언론들 은 《년말최대사건》, 《배후는 누 구인가?》, 《집권 2년 국정롱 로기사들을 실으면서 《청와대 밖의 민간인과 청와대내부의 실세비서관들이 비서실장의 인 사문제까지 거론하며 권력다툼 양상까지 보였다는 사실은 충 격적》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정윤회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그는 현 집권자와 모호한 판 계를 가지고 정치적후견인의 역할을 놀던 목사 최태민의 사

하다면 청와대를 쥐락펴락한

현 집권자가 1998년 대 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 그의 보좌관으로서 처음 인 연을 맺었다. 그후 정윤회는 현 집권자가

2002년 《미래련합》이라는 당을 내오고 총재가 되자 그의 비서실장으로 둔갑했다. 하지 만 현재는 아무런 공직도 가지 고있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현 집권

자의 보좌관출신들로부터 《실 장님》으로 떠받들리우고있다. 또한 청와대의 핵심인물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있어 《그 림자실세》로도 불리웠다. 정윤 회가 딸문제를 놓고 체육계의 일부 관리들과 대립하였을 때 현 집권자는 그의 적수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 가차없 이 해임시켰다고 한다.일이 이쯤되였으면 정윤회가 현 집 권자를 배경으로 하여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인물인 가 하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

할수 있다. 이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를 따져보아도 썩을대로 썩은 남

들은 이 사건이 정유회와 현 집 권자의 동생 박지만세력간의 권력암투의 결과라는데 주목하

두 인물사이의 갈등은 지난 3월 정윤회측이 박지만을 미 행했다는 보도가 실리고 그로 하여 법정싸움까지 벌어지면서 확대되였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문건도 박지만측이 미행에 대 한 복수로 정윤회에 대한 뒤조 사를 하는 과정에 작성되였다 고 한다.이 문건을 작성한 청 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과 그의 상관이 문건작성직후 청와대에서 쫓겨났는데 이것은 정윤회의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언론들은 평 하였다.

청와대의 더러운 내막을 폭 로하는 《정윤회국정개입의혹사 건》이 보도되자 새정치민주련 합은 즉시 사건을 《특대형국정 쿠데타》,《정윤회게이트》로 규 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 으며 사건의 최종책임이 집권 자에게 있다고 하면서 특검도 입과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해나섰다.

이렇게 되자 사건의 당사자 인 정윤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싸구려음모론》이라고 항변해 나섰다. 《새누리당》은 《류언비 어》니,《질나쁜 정치공세》니, 《검찰수사가 우선》이니 하면서 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

고있다. 청와대측은 보도된 문건이 저들의것임을 인정하면서도 현하여 엄격한 단속에 나선것

니 하며 《세계일보》 사장과 편 집국장,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6명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사건에 대해 한동안 입 을 다물고있던 현 집권자는 파 문이 확대되자 며칠전 드디여 입을 열었다.

그는 문건루출은 있을수 없 는 《국기문란행위》라느니 뭐니 하고 엄포를 놓으며 철저한 수 사를 통해 문건루출판련자들을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그리고 《말도 안되는 일》을 언론이 사 실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 고 노발대발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새정치

민주련합은 집권자의 발언은 검찰에 수사방향을 미리 그어 주는것으로서 용납할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며 청와대 비서 실장과 사건당사자들이 사퇴할 것을 주장해나섰다.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 일보》까지도 언론보도를 문제 삼은 집권자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해나섰다.얼마전에 있은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60% 가 사건보도가 《사실일것》이라 고 대답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 의 처사는 자기에게 불리한 《정 윤회국정개입의혹사건》의 현 구도를 문건루출구도로 돌리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한 언론은 북남수뇌상봉 담화록공개사건을 외면하던 청와대가 이번 문건루출과 판

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런 속에 현 집권자의 동생 박지만의 측근으로서 문건작 성에 관여한 전 청와대 공직기 강비서관 조응천과 정윤회가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비난하

는 폭로전을 벌리였다. 보도에 의하면 조응천은 정 윤회가 문건작성과 관련하여 자기에게 청와대 비서판들을 통해 전화압력을 가한 사실 등 을 폭로하였다.

언론들은 그에 대해 전하면 서 서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이 런 개싸움으로 하여 그동안 은 페되였던 청와대의 썩은 면모 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번 사건이 권력층내 부의 파벌싸움으로 확대되고있 다고 보도하였다.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고 거미줄처럼 엉켜돌아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노릇이다. 하지 만 드러난 사건의 내용이 빙산 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 한 절대로 그냥 스쳐넘어갈 문 제가 아닌것만큼 남조선정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는 지 금까지 드러난 사건을 보면 집 권자가 《정치적으로 죽느냐 사 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는것 같 다. 》고 분석하였다. 언론들도 《정윤회국정개입의혹사건 년말 정국강타》, 《숨은 실세의혹 일 파만파》,《박근혜〈정부〉최대위 기》 등으로 대서특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효진

력사에는 아름다운것만 남는것이 아니다. 때로는 추문과 오점으로 얼 룩진 수치스러운 사건들도 기록되게 된다. 바로 얼마전에도 유엔은 미국 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반공화국 《인권결의》날조에 순응함으로써 자 기의 영상에 스스로 먹칠을 하였다.

어떻게 놓고보면 이것은 별로 새 삼스러운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엔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자기의 사 명과 역할을 저버린채 미국의 강요 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노릇을 하는 기구로 전략되고있는데 대한 국제적비난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때 에 나타난 현상이기때문이다.

이전부터 유엔은 《국제경찰관》, 《국제재판관》행세를 하면서 주권국 가들의 내정에 함부로 삿대질을 하 고 미국의 조종에 놀아나 유엔헌장 에 배치되는 결정을 채택하군 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 뿌리는 대단히 깊다.

지난 세기 중엽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촉발시키는데 유엔이 부당하 게 리용되였다. 새 세기에도 우리 인 민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 상, 압박하는데 유엔이라는 이름이 적극 도용되였다. 그 직접적인 조종

자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때 에도 유엔의 간판을 써먹었다. 그리 고는 저들이 무력을 사용한것은 유 엔의 《결정》이기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 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지금까지의 력사를 총화해보면 유 엔무대가 주권존중과 주권평등, 내정 불간섭의 원칙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큰 나라와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은 덮어놓고 편역을 들어주며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작은 나라들의 자 주권과 국권을 침해하는 마당으로

### 전횡에 눌리운 공정치 못한 유엔의 강권과

문에 이번에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무대를 악용하여 조작 해낸 《인권결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면거부, 전면배격한다는 원칙적립 장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는 원래부터 《북조선인권문 제》라는것이 체질적이며 병적인 반 공화국적대감에 빠져있는 미국이 날 조한것이여서 그것을 놓고 가타부타 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미국과 그 추종세 력들이 천만번 부당한 반공화국《인 권결의》가 우리를 어쩔수 없게 만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확대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 고있는 조건에서 사건의 전말에 대 해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은 비단 어제오늘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 다. 우리는 지난 세기 90년대에 벌 써 반공화국핵소동을 몰아온 미국이 언제인가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날 조하여 전면에 들고나오리라는것을 예견하였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 였다.

핵문제를 걸고 벌려온 대조선고립압 살책동이 더는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미국은 추종세력들을 동원하여 반공화 국《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기 시 작하였다. 어중이떠중이들을 모아놓고 《북조선인권대회》라는 광대놀음을 벌 려놓았는가 하면 국회를 발동하여 내 정간섭적인 《북조선인권법》까지 채택 하여놓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의 제도 전복을 위한 《인권》공세의 도수를 체 계적으로 높여왔다.

유엔인권리사회를 조종하여 《북조 선인권상황》을 전담한다는 《북조선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날조된 《북조 선인권보고서》에 근거하여 《인권결 의안》이라는것을 만들어 유엔총회에 서 강압통과시키는것으로 반공화국 《인권》공세를 국제적범위에로 확대 시키려고 책동하여왔다. 이번에 미국 의 주도밑에 강압통과된 반공화국 《인권결의》가 그 결과물이다.

《결의》조작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날 치기판이였다. 사실 미국이 《북조선인 권상황조사위원회》라는것을 조작할 때부터 적지 않은 나라들이 그것이 유 엔의 사명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며 또 현실에도 맞지 않는것이라고 강하 게 반대하였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 모 든것을 깔아뭉개고 《북조선인권상황 조사위원회》를 동원하여 우리의 《인권 문제》를 걸고들기 위한 모략과 날조, 사기와 협잡놀음에 열을 올리였다.

우리의 《인권실태》에 관한 《청문 회》, 《국제학술토론회》를 벌려놓고 유치하게도 인간이기를 그만둔 범죄 자들까지 내세워 《증언》이라는것을 하게 하였다.

우리는 무모하게 번져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소 동에 대해 여러번 경고도 하고 좋지 못한 파국적후과가 초래될수 있다고 충고도 주었다.미국은 여기에 조금 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미국은 끝끝내 우리와의 대결의 길을 택하였다. 사기와 모략으로 날 조해낸 《인권결의안》을 유엔총회에 공식 제출하고 그것을 강압통과시키 기 위해 비렬하게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매수와 압력에 매달렸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화국 《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하지 않으 인권상황조사위원회》까지 날치기로 면《경제원조》를 잘라버리겠다느니,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서의 참다운 정

치적자유와 권리

를 마음껏 행사

치 못하고있다.

이 지적하였다.

있다.

였다.

하고있는 선군조선의 모습에 국

제사회계는 경탄과 부러움을 금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

페지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별, 거주기

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

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에서는 인민들

의 정치적권리가 최상의 수준에

서 실현되고있다. 모든 사람들

이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

고있으며 언론, 출판, 집회, 신

앙의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고

착취와 억압, 부익부, 빈익빈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것이라느니 뭐니 하 며 압력을 가하였다. 지어 일부 나라 외무상들을 직접 불러다놓고 재정적 후원문제를 걸고 공개적으로 협박하 면서 지지표를 늘이려고 발악하였 다. 이렇게 미국은 유엔성원국들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아니라 강권과 전횡, 회유와 매수의 방법으로 반공 화국《인권결의안》을 강압통과시키는

정치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유엔은 말그대로 미국의 롱락물이 되였다. 국제사회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별적나라에 놀아나는 유엔이 과연 국제사회의 리익을 대변할수 있겠는가고 회의심 과 경계의 눈길을 보내고있다.

유엔이 오늘과 같이 된데는 유럽 동맹에도 책임이 있다. 그에 대해 응 당히 계산은 계산대로 하여야 한다. 이번에 유엔에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조작에 앞장선것은 유럽 동맹과 일본, 남조선괴뢰들이다.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은 원래부터 티끌만 한 자존심도 없이 미국에 정 치적운명을 걸고 하내비처럼 섬기는 주대없는것들이니 맹종맹동한 대가 로 응당한 천벌을 받게 되겠지만 그 래도 유럽동맹은 자기의 체모에 어 울리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지 않았겠는가.

지금까지 유럽동맹은 국제무대에 나서면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 을 주장하였다. 유럽동맹의 고위인물 들은 그것이 동맹의 일관한 립장이 며 절대로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하

그런데 행동은 공약과는 판판 다 르게 하였다. 유럽동맹은 자기가 한 공약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으며 계 통적으로 위반하여왔다. 인권문제취 급에서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소리 를 하고 편견적이며 선택적인 반공 화국대미추종정책을 실시하여왔다.

공화국정부가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 나라들과 평등한 기초우에서 인권대화와 협력을 해나갈 의사를 충분히 보여주고 유럽동맹이 우리의 현실을 제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기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할데 대한 합 리적인 제안도 내놓았으나 그들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던져버렸다. 세 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국의 인권유 린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면 서 한때 좋게 나가던 쌍무인권대화 까지 줴버리고 미국의 반공화국《인 권》소동에 합세하여나섰다.

그들이 내들고있는 《증거자료》라 는것들은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용 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제 고 향,제 부모처자마저 저버린채 도망 간 인간쓰레기들이 버러지같은 잔명 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섬긴 거짓자 료들이다. 이런것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는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있 는 유럽동맹에 자기의 톡톡한 주견 과 속대가 있다고 말할수 없다.

유럽동맹으로 말하면 세계의 한 극을 형성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실 시할것이라고 광고하며 등장한 거대 한 존재이다. 이로 하여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이런 유럽동맹이 객관적인 현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미국에 추종해나 서서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에 앞 장섬으로써 자기의 공약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동맹의 영상과 체면에 먹칠을 하는 청맹과니짓을 하였다.

사람들이 유럽동맹의 본래의 자세 와 립장이 변하였다고 하고있는데 이에 대해 유럽동맹은 할 말이 없게 되여있다. 실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기때문이다.

유럽동맹은 주판적의도는 어뗘하 든지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국제 적으로 고립시키고 우리 식 사회주 의제도를 뒤집어엎으려는 미국의 대 조선전략에 보조를 맞추며 공공연히 가담한것으로 되였다.

유럽동맹의 이번 행동은 그자체에 만 국한된것이 아니다. 오늘 국제사 회는 이제라도 늦게나마 유엔이 정신 을 차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 장하게 된 자기의 사명에 맞게 헌장 에 명시된 주권평등, 주권존중의 원 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바라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 유럽동맹이 유엔을 강권과 전횡의 란무장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행동에 동조해나섬으로써 세 계의 민심에 도전해나섰다. 유럽동맹 이 이렇게 행동한것은 처음이 아니 다. 결국 유럽동맹은 본래의 자세에 서 벗어나 강권과 전횡으로 유엔을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든 미국의 둘러 리노릇을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강 권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을 세우지 못한데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이번에 유엔에서 미국이 독판치기 를 하면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날 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한 진리가 있 다. 그것은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면 큰 나라에 의존하게 되고 나중에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팔아먹고 싫 든좋든 그들의 손발노릇을 해야 하 는 처지에 빠져들게 된다는것이다.

대조선《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

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조선문 제가 정치적으로 예민하기때문에 공 정한 립장을 견지할것을 정부에 건 의하였지만 《경제원조》에 목이 매인 정부의 지시를 집행할수밖에 없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였다. 어떤 나 라는 반공화국《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하지 않으면 미국이 자국의 내 부문제를 국제화하겠다고 압력을 가 하였다고 하였다. 유럽의 일부 나라 들도 유럽동맹이 미국에 동조하니 하는수없이 따라가지만 자기들은 조 선의 《인권문제》를 걸고드는것이 터 무니없다는것을 인정한다고 우리에 게 실토하였다.

이 박두하였을 때 일부 나라 대표들

유엔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 제화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우 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 고있다. 어떻게 하나 우리의 《인권문 제》를 부각시켜 침략의 구실을 마련 하자는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미국의 《인권》소동뒤에는 반드시 침 략전쟁의 총포소리가 울린다는것은 력 사의 교훈이다. 국제법도 안중에 두지 않고 세상에 저들밖에 없는것처럼 놀아 대는 미국이 우리를 먹어보려고 발광적 으로 미쳐날뛰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 리로 하여금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참다운 인권을 지키자면 뭐니뭐니 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 힘이 없으면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자들과 맞서 싸울수 없으며 진정한 인권을 수호 할수 없다.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도 수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전쟁억제력 은 더욱 강화될것이며 그것은 미국 과 그에 놀아나는 추종세력들을 무 자비하게 짓뭉개는 정의의 철퇴로 될것이다.

리 학 남 

#### 년 례 서 발 표 로 씨 야 대 통 령 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 나라에서의 정부전복음모를 찐이 4일 련방회의에 보내는 년 가리우기 위해 《인권문제》에 레서한을 발표하였다.

그는 서한에서 먼저 올해 나 라앞에 가로놓인 시련을 완강하 게 뚫고나가고있는 로씨야공민 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정부의 기본활동원칙은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민족 그리고 미래에 대 한 지향, 발전과 진보를 위한 조 건으로서의 안정,국가의 안전 이 담보된 조건하에서의 다른 인민, 다른 국가에 대한 존중, 로씨야의 합법적리익고수》라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해 언급하여 미국과 서방이 이

2일 일본방위성은 미국제수

이 수륙량용차는 해상에서 직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

1일 이스라엘경찰은 요르단 하였다.

요즘에는 그 어

느 나라, 그 누구

를 막론하고 미국

에 비난과 규탄,

내고있다.

야유와 조소를 보

늘 봐야 남을

훈시하기 좋아하

며 위세를 돋구

던 미국이 서리

맞은 떡잎신세가

과연 무엇때문

지난 8월 미주

리주의 퍼구슨시

에서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청년살

해사건이 발생한

후 인종차별행위

를 반대하는 시위

가 그치지 않고있

다.오늘에 와서

시위는 미국의

170여개 도시

로 확대되고있다.

이에 바빠맞은 당

국은 그 진압에 군

대까지 동원시켰

다. 무분별한 탄압

으로 하여 부상자

들이 발생하고 수

많은 시위참가자들이 구속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인권유린행위이다.

그러나 미국집권자는 오히려 시위

행동을 범죄시하면서 《폭력행위》 에 관용은 없다느니 뭐니 하고 시

위참가자들을 모독하였다. 사건의

주모자인 백인경찰관 역시 경찰관

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을뿐이

라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량심상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미당국자부터가 살인자를 끼

뻔뻔스럽게 줴쳐댔다.

되여버렸다.

인가.

Ot

에 대한 탄압에 계속 광분하고

위대》에 도입하기로 결정하

열을 올리고있다.

있다.

인

일본의 무분별한

륙량용차 《AAV-7》을 륙상《자 한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

대해 뗘들어대는것은 위선적 인 행위이며 로씨야는 우크라 이나문제에서 서방에 맹목적 으로 추종하지 않을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대로씨야제재를 비롯하여 힘 의 립장에서 로씨야와 대화하려 는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그 는 로씨야는 그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쇄국의 길로 나가지 않을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미국의 전지구적인 미싸 일방위체계가 로씨야의 안전뿐 아니라 세계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송할수 있기때문에 《외딴섬탈

환》작전 등에 리용될것이라고

수륙량용차들이 납입되게

강서안지역에서 부당한 구실

로 3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

인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

공공연히 묵인되고있는 속에 지

난 2일에는 또 미국의 아리조나

주 서부지역에서 백인경찰이 무

고한 흑인남성을 총으로 쏘아죽

대는 《인권옹호》, 《인권존중》이

란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세상사람들은 미국이 뗘들어

《인권옹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만행에 온 세상이

로씨야외무성이 웨브싸이트

에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를

올리는 등 미국의 인권유린만행

을 폭로하는 여론공세를 강화하

최근년간 미국은 로씨야에 심

각한 《인권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 이 나라를 시비해나섰다.미

국은 우크라이나문제를 걸고 로

씨야가 이 나라에 불안정을 조

하고있다고 걸고들었다.

고브가 론평을 발표하였다.

에 주의집중할 때가 되였다는

또 한차례의 경고신호로 받아들

로씨야외무성은 지난 11월

26일 하루동안에만도 2건의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인권실

태를 신랄히 까밝혔다.성명은

퍼구슨과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는 워싱톤의 《인권옹호주의

자》들이 얼마나 위선자들인가를

톡톡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모

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더 명백히 알게 되였다.

경악을 표시하고있다.

고있다.

로씨야는 나라의 방위력을 믿 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한 독창적 인 해결책을 취할것이며 그 누 구도 로씨야에 비한 군사적우위 를 이룩하지 못할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그는 2015년 1월부터 유라 시아경제동맹이 본격적으로 사 업을 시작할것이며 이 동맹의 기본원칙은 평등과 실용주의 호상존중 그리고 모든 참가국들 의 민족적독립 및 자주권을 고 수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로씨야의 번영과 복리는 로씨 야국민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서 그는 무규률성과 무책임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련이은 총기류범죄 무력강화책동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일본당국이 무력강화책동에 접 상륙하여 인원과 물자를 수

> 건이 발생하여 사회적물의를 일 으켰다. 이날에 감행된 범죄로 4명이

서 1일 3차례의 총기류범죄사

목숨을 잃었다 한다. 지 뉴질랜드의 노스섬 동북부지 역에서 4일 리히터척도로 5.2

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그 부근 땅속 75.62

km 되는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자기 집안에서 터진 대규모의

인권유린행위나 바로잡으라고

야유조소하였다. 그 다음날에도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이번에 벌어진 퍼구슨 사태가 미국식민주주의의 체계 적인 허점을 확증해주었다고 강 조하였다.

《경찰이 깽단보다 살인을 더 많 이 하는 미국》, 이것은 로씨야의 소리방송에서 울려나온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최근 미국의 쏠트 레이크씨티 지역 신문인 《쏠트 레이크 트리 분》이 경찰의 살인사건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실었다. 그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 10 월까지 미국의 유타주에서 발생 한 살인사건중 4 5건은 경찰이 저지른것이였다. 권력람용 등으 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처벌 등은 거의나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것이 신문의 평이다.

성하고있으며 뿌찐대통령이 정 2013년 미련방수사국이 작 치적적수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 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의 총 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461명으 지난 11월 25일 로씨야외 무성 인권문제담당 전권대표 돌 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언론들 은 이 수자보다 더 많을것이라고 전하고있다. 그것은 미련방수사국 론평은 퍼구슨사태는 미국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의 통계자료에는 형사사건만이 올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이번 사 라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한 전문 태를 자국내의 인권보장문제들 가는 경찰의 손에 죽은 사람들의

> 여명에 달할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해마다 《인권재판판》 으로 자처하며 미국식《인권자대》 를 휘두르며 돌아치던 《유일초대 국》이 로씨야의 인권비난공세로 궁 지에 몰리우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수가 지난 한해에만도 1 700

미국이 받는 대접은 미국자신 이 자초한것이다. 아무리 미국 이 저들의 인권에 대해 온갖 미 사려구로 분칠하려 해도 자루속 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미국의 뿌리깊은 제도적병집을 들어낼

## 경지에서 보장되는

찬 제 사 회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보장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 고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과 휴식의 권리, 무료교육 과 무상치료를 받을수 있는 권 리를 비롯하여 온갖 권리를 전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로부터

면적으로 보장받고있는 나라가 바로 조선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는 인터네

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실업자를 그 어디 서도 찾아볼수 없다. 로동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희망 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안정된 일

자리를 보장해주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는 이 나라에서는 누구나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심심 산골이든 자그마한 섬이든 학교 가 일떠서 배움의 글소리가 울 려퍼진다. 대학과 전문학교들에 서는 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으

이 강조하였다.

삼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귀중한 존재로 내 세우고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향도되는 나 라에서 인권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며 공부한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조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인권이 훌륭히 보장되고있는것 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로씨야신문 《웨쩨란》은 다음

조선에서는 누구나 무상치 료를 받고있다. 국가가 살림집 건설을 인민들에게 문화적이 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 기고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 고있다.

최근년간 평양에 훌륭히 일뗘 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 집, 창전거리, 은하파학자거리 등에는 평범한 교원, 연구사들 과 근로자들이 돈 한푼 내지 않

고 입사하였다.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어린이들. 장애자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 다. 녀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국가와 사 회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다.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사회경제적권리 보장에 있어서 조 선은 자본주의나 라들에 비할바없 이 우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이다. 사람들은 교육과 치료를 받 을 권리,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집 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충분히 행 사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없고 로동할 권리 등이

원만히 보장되는 나라는 없을것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반공 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권》소동을 통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노리는것은 사 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훼손시 키고 참다운 조선식사회주의를 허물어보자는것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 공화국《인권》소동에 열을 올려 도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길로 꿋

꿋이 전진하고있다.

위 하여

#### 이 존재하지 않는 조선에서는 학비라는 말조차 모르고 배움의 과 같이 썼다. 지적하였다. 발경을 계속 ~~』사회적진보와

라 니 움 농 축 을 추 진 립 장 천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수 없는 권리라고 그는 강조하 2일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라니움농축을 계속 추진할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

이란정부가 지난 15개월동 안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 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한 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핵계 획의 기본원칙들에 대한 이 란의 립장은 정당하다고 말

하였다. 가지는것은 이란인민의 양도할 였다.

였다.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 드 자리프가 2일 한 회의에 서 연설하면서 렬강들과의 핵협상에서 나라의 권리를 끝까지 수호할것이라고 언명 하였다.

그는 이란의 핵계획은 다 른 나라에 위협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0% 평화적 핵기술을 포함한 선진기술을 목적을 위한것이라고 강조하

협 조 베네수엘라와 우루파이가 3 일 농업, 과학기술, 에네르기분 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피지와 투발루는 교 육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량해 각서에 조인하였다.

\* 캄보쟈와 타이가 2일 국경안 전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1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정보기술분야에 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국내총생산장성전망

꾸바에서 2015년에 국내총 생산이 4%이상 장성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11월 28일 이 나라 정부가

된 현 회계년도의 2.4분기에 2000년의 10만명당 21.7명 경제가 5.3% 증대되였다. 11월 28일 이 나라 정부가 이라고 밝혔다.

밝혔다.

밝혔다. 경 제 장 성

수 출 증 대 니까라과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 증대되였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에이즈방지노력 말레이시아에서 에이즈방지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1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말 인디아에서 올해 4월에 시작 까지 에이즈비루스감염률이 으로부터 11. 2명으로 줄어들것

【조선중앙통신】

#### 인종차별반대시위 미국에서 계속

시위자들 찰 이 의

시위군중을 무자비하게 탄압

가 계속되는 가운데 5일 시위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 의하였다. 그들은 《흑인들의 목숨이 문 하고있다.

통신】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미국에서 최근 당국의 인종차 별정책에 항거하는 사회적기운 이 날로 고조되고있는 속에 항 의시위가 전국의 대도시들에로 기로 한 사법 확대되고있다.

6일 뉴욕과 워싱톤,데트로 결정을 규탄하 이트, 로스안젤스, 휴스톤, 시애 였다. 틀 등 많은 도시들에서 시위들 이 일제히 벌어졌다.

시위자들은 바닥에 드러누 워 주요도로들을 점거한채 되는데 당황 죽은 시늉을 하면서 경찰의 살인만행을 묵인한 사법당국 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

1451441

1455249

제다》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살 인행위를 저지른 백인경찰들을 불기소처분하

시위가 전 국적인 범위

당국의 부당한

로 계속 확대 해난 당국은 수많은 경찰 들을 내몰아



진압에 동원된 경찰이 20명의 시에서 경찰의 만행에 분 시위자들을 체포해가는 폭거를 노한 시위자들이 상점들을 뉴욕에서 연 3일째 항의시위 감행하였다. 들부시며 완강히 맞서싸 캘리포니아주의 버클리 웠다.



고돌며 평화적주민들을 탄압하도 스크바에 삿대질을 할 그 어떤 록 군대까지 내몰고있는 판에 그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방도는 오직 제국주의파쑈제도 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리 러면서 미국이 남들에게 《인권 를 뒤집는데 있다. 없다. 이렇게 엄연한 범죄행위가 옹호》에 대해 설교하기보다는 본사기자 박송영 편 집 위 원 회